

위원회 소식

경기도론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에서 '언론중재 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석희태(경기중재부) 경기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와 조정근(경기중재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인사 60여명이 참석,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강화된 위상에 걸맞은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 시정권고제도가 갖는 위축효과에 대한 우려 의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결정시 '위법성조각사유' 요건의 면밀한 검토를 강조하는 의견 등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위원회 전자도서관 구축

위원회는 전자도서관(<http://lib.libportal.co.kr/pac/>)을 구축,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검색 및 대출 신청의 편의를 도모했다.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의 중앙에 있는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단행본 2,200여 권과 정기간행물 1,000여 권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위원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무처 직원 포상

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조준희 위원장은 사무처의 유공직원과 장기근속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포상자 명단〉

- 공적상 : 양재규(법무상담팀) 팀장, 황명자(부산사무소)
- 근속상
 - 20년 근속 : 오광건(조정심의본부) 본부장, 이진숙(대전사무소) 소장
 - 10년 근속 : 김일경(조사연구팀) 팀장, 임득상(전문위원), 안백수(심의팀) 차장
 최영훈(조정2팀) 차장, 조준원(기획혁신팀) 차장, 이수중(예산회계팀) 차장
 김주용(대구사무소) 소장, 임종우(예산회계팀), 김문성(조사연구팀)
 여운규(부산사무소) 소장, 박혜진(교육홍보팀), 최숙희(강원사무소)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 열려

지난 4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청구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양재규(법무상담당팀) 변호사와 이주관(조정2팀) 변호사가 참석해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과 상관없이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만 따져 신속하게 정정보도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과 시정권고제도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논지를 폈다. 이해관계인의 문화관광부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양삼승(서울제3중재부) 변호사는 “언론사는 결코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특별한 공익적 제한도 기꺼이 수용하는 이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25일에 열린 헌법소원 2차 공개변론에서는 헌법소원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하여 관련법에 대한 위헌·합헌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었으며, 현재관계자는 6월말 경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체육대회 개최

지난 4월 28일, 사무처는 경기도 과천 관문 체육공원에서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발아구와 신발 멀리보내기, 축구 등의 종목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직원들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대전 지역 간담회 개최

위원장은 지난 5월 19일과 26일, 대구지역 및 대전지역 언론사 대표를 초청,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설명하고 각 지역의 언론현황과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